



경영권분쟁 콜마그룹
실적부진 지적에
윤여원 “최대 매출”
L1



Life

알리바바닷컴
거래보호 강화 등
韓 B2B 공략
L2



디지털 문턱 낮추고, 친환경 속도 높이고... 포용의 길 달리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이동 그 이상의 가치여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파트너와의 상생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이동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소외 없는 모빌리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ESG 활동 중 가장 주목받는 영역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들도 모빌리티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Tis와 협업한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다. 사용자가 ‘02-114’에 전화를 걸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달하면, 상담사가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대신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출시 후 빠르게 확산되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 1만건을 돌파했고, 전체 고객의 약 20%가 다시 이용할 정도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서대문구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선보여온 ‘서대문희망차’는 이동 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노약자나 부상으로 일시적 보행이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12월 서울디지털재단과 ‘누구나 쉽게 배우는 카카오 T 택시 이용법’ 교육 영상 시리즈를 제작, 시니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문턱을 낮췄다. 앱 설치부터 호출, 결제까지 단계별 사용법을 3~5분 길이의 튜토리얼로 만들어 모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파트너와 연대 강화,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 출범

“카카오모빌리티는 파트너들과 함께해 왔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을 출범하며, 플랫폼 종사자들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재단은 ‘택시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 사업’과 ‘도로 위 히어로즈(모빌리티 종사자 의인 시상 프로그램)’를 체계화해 선별 계획이다.

택시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 사업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564명의 택시기사들과 가족들에게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브서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올 여름 운영하는 전국 택시기사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주니어랩’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바탕으로 ESG 활동 펼쳐
어르신 위한 ‘택시 불러주기’ 서비스
이동약자 불편 덜어주는 ‘희망차’ 운영

택시기사·가족 위한 의료 복지 혜택
여름방학엔 자녀 위한 ‘IT캠프’ 열어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종이낭비 줄여
T 바이크 운영,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ESG 통합 브랜드 ‘201 캠페인’ 펼쳐



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료비 안심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 위 히어로즈 사업은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 중 선행을 실천한 의인을 찾아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연을 접수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연 공모 활성화를 위한 SNS 캠페인도 개시했다.

재단은 상생의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한 ‘주니어랩’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3년 첫선을 보인 주니어랩은 IT 기술 기업의 역량을 심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주니어랩 4기’는 카카오 T 택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택시기사의 중학생 자녀 및 손자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모빌리티 코딩 실습, 현업 개발자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이 진행된다.

◆기술로 실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택시 운임 자동 결제로 승객과 택시 종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 낭비도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택시 운임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영수증을 대체했다. 카드나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사와 승객 사이 실랑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종이 낭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영수증 감열지 구매와 발급 비용을 절감해 택시기사·사업자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했다.

카카오 T 바이크 운영을 통해서도 나무 375만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성과를 이뤘다. 또 ‘기브서들’ 캠페인을 추진해 자원봉사와 여행이 결합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든 ESG 활동은 ‘201 캠페인’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프로젝트 투), ‘0’은 소외 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프로젝트 제로), ‘1’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행동 실천(프로젝트 원)을 의미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01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사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과정은 대중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조타 장례식 불참 디아스, 파티 참석해 ‘댄스’... 팬들 분노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무주 태권도원에서 11일 개막 /사진 뉴시스

▲제50회 전국기계체조대회 성료...양학선, 남자 일반 도마 우승
▲손흥민 대체자로 지목된 쿠두스...토트넘·웨스트햄 간 협상 계속

▲역도 김하준, 아시아유소년선수권대회서 용상 은메달 획득
▲근대5종 성승민, ‘장애물 시대’ 월드컵 파이널서 은메달